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	
		배포일자	2022년 9월 23일(금) 총 5매		
담당 부서	해양친수과	담당자	• 연안관리팀장 박동열 ☎458-7151 • 담당자 조윤희 ☎458-7154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연말까지 연안 3곳에 모래 4만^{m³} 채워 정비한다

- 하나개·동막·대이작 해안1 지구 등 3곳 양빈사업 연말까지 마무리 -
- 해양친수공간, 해안산책로 조성 공사 등 연안정비사업 계속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안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.

연안정비사업은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연안보전사업과 쾌적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10년마다 연안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며, 지난 2020년 6월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(2020 ~ 2029)이 수립·고시됐다.

오는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대표적 연안보전사업 지구는 ▲중구 하나개 지구 ▲강화군 동막지구 ▲옹진군 대이작 큰풀안·작은풀안 해안1지구 등 3곳이다. 이들 지구에는 해안의 침식을 막기 위해 모래를 채워 인위적으로 해변을 조성하는 양빈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.

중구 하나개지구 15,000^{m³}, 강화군 동막지구 8,000^{m³}, 옹진군 대이작 큰풀안·작은풀안 해안1지구 17,724^{m³} 등, 총 40,724^{m³}*의 모래가 투입된다.

그중 강화군 동막지구에는 호안과 방사제 공사도 함께 시행한다. 또 연말까지 강화군 동막지구 친수공간 조성 설계용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.

* 2022년 12월 준공 예정 연안정비사업

- 중구 하나개지구: 9억 원(양빈 15,000^{m³})
- 강화군 동막지구: 22억 원(양빈 8,000^{m³}, 호안 466m, 방사제 30m),
- 옹진군 대이작 큰풀안·작은풀안 해안1지구: 7억 원(양빈 17,724^{m³})
- 강화군 동막지구(친수공간): 설계용역 2억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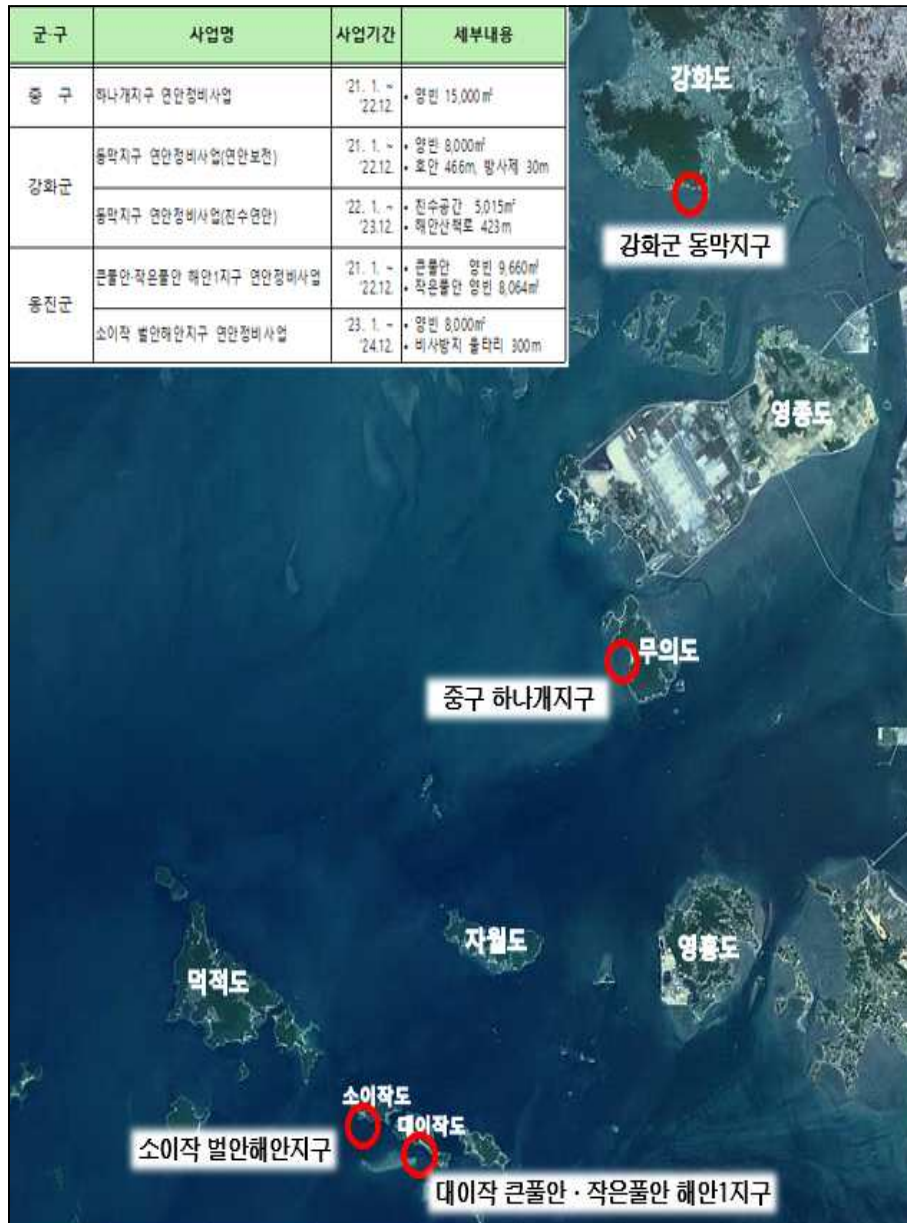
이어 내년에는 ▲강화군 동막지구의 친수공간 및 해안산책로 조성 공사와 ▲옹진군 소이작 별안해안지구 연안보전사업의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, 2024년에는 옹진군 소이작 별안해안지구의 양빈사업과 비사 방지 울타리 공사를 마무리해 연안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.

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“해일, 파랑,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관내 연안을 보호하고, 훼손된 연안을 정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연안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

<참고> 사업 위치도 및 위성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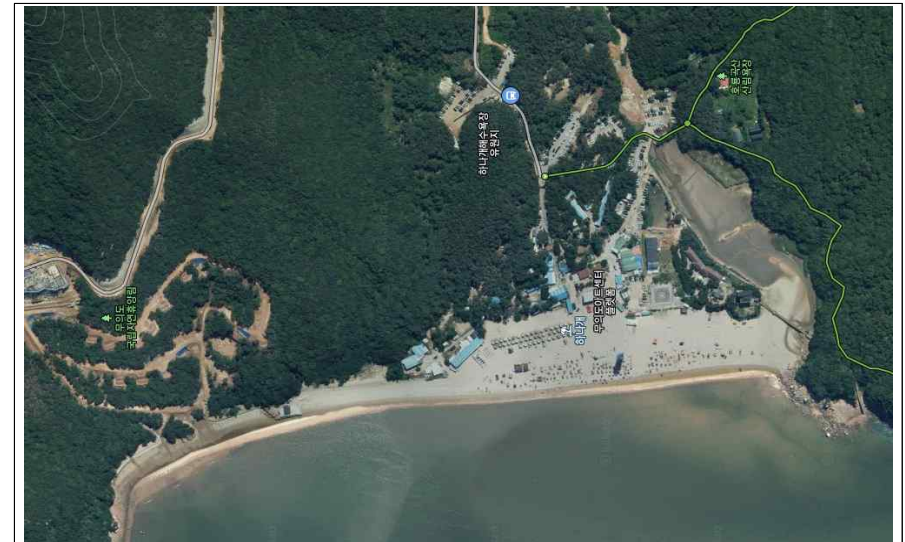
참고 1

사업 위치도



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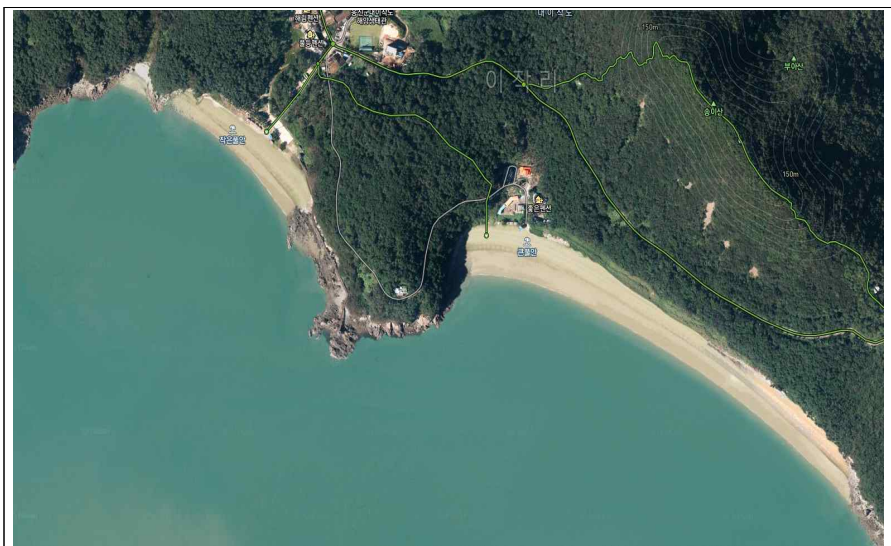
해수욕장 위성사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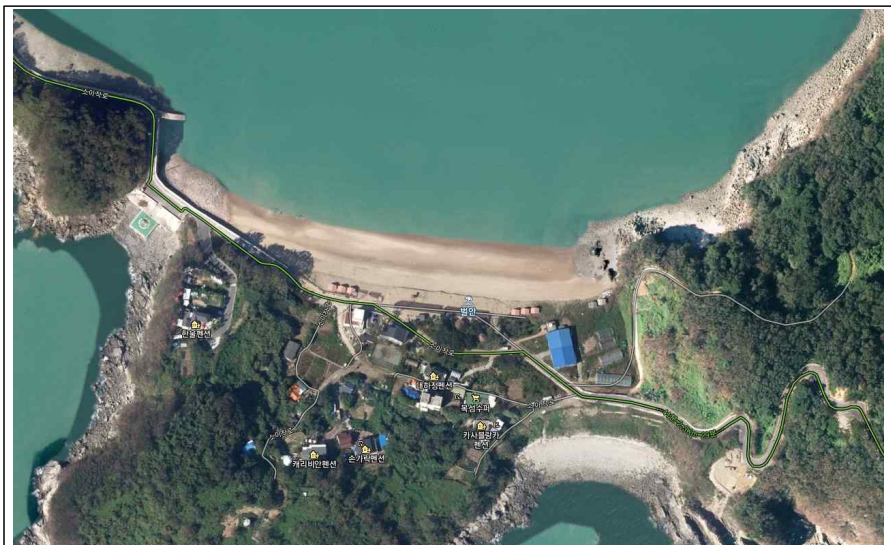
중구 하나개지구 해수욕장



강화군 동막지구 해수욕장



웅진군 대이작 큰폴안·작은폴안 해안1지구 해수욕장



웅진군 소이작 별안해안지구 해수욕장